

1. Welcome to JOYLAND!

유치부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2. " 나는 예배자 인증샷 올리기!"

매달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로 한달 동안 보내주신 인증샷을 모아 "나는 예배자" 코너로 소개됩니다. 매주일 아이들이 서로서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I am a worshipper!"

Have a family worship through our online service and take a picture. Post it on your class group chat or send it to your teacher. We welcome all our children who are coming out to worship the lord even in these difficult time. Those who participate will receive 50 talents each Sunday! Click [유치부 예배 실황](#) at [bkc.org](#)

3.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대림절) 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Monthly Bible verse "말씀 속~ 믿음 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속 깊이 심겨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생의 길잡이가 될 성경구절을 유치부 친구들이 많이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달동안 손유희와 함께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유치부 온라인 예배: 함께 만들어 가요~!

아이들이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코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 혹은 비디오로 찍어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그 다음 주 예배 영상에 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친구들의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기쁨이 아주 클것입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자칫 말그대로 "예배를 보는" 수동적인 예배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예배, 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vent Calendar 유치부 행사 계획

- 11/29 The first Advent Sunday
- 12/06 The second Advent Sunday
- 12/13 The third Advent Sunday
- 12/20 Christmas Sunday Worship
- 01/02 Craft & Elijah Morning service package

Offering Prayer 헌금 기도 위원

	2nd	3rd
-----	-----	-----
-----	-----	-----
-----	-----	-----



■ 유치부 예배 안내  
 장소 : 조이채플 E-152 /시간 : 9:15AM & 11:30AM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Rev. Bryan Kim, Lead Pastor  
 유치부: 이승진 전도사 /joyland@bkc.org  
 팀장: 김병수 집사/ bert3315@gmail.com 714) 308-8574



베델교회 유치부

JOY in Joyland stands for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유치부의 비전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Although this world is full of selfishness and individualism, we need to remember that Jesus is the first, other people come second, and then we are third in our life. Therefore, our ministry vision is to help our children to grow up to love Jesus and then to pray for each other as the order in their life.

Memory Verse For This Month

아래 성경구절을 각 반 선생님 앞에서 외워주세요! (Recite the following verse to your teacher)



<대강절 및 성탄절 말씀 암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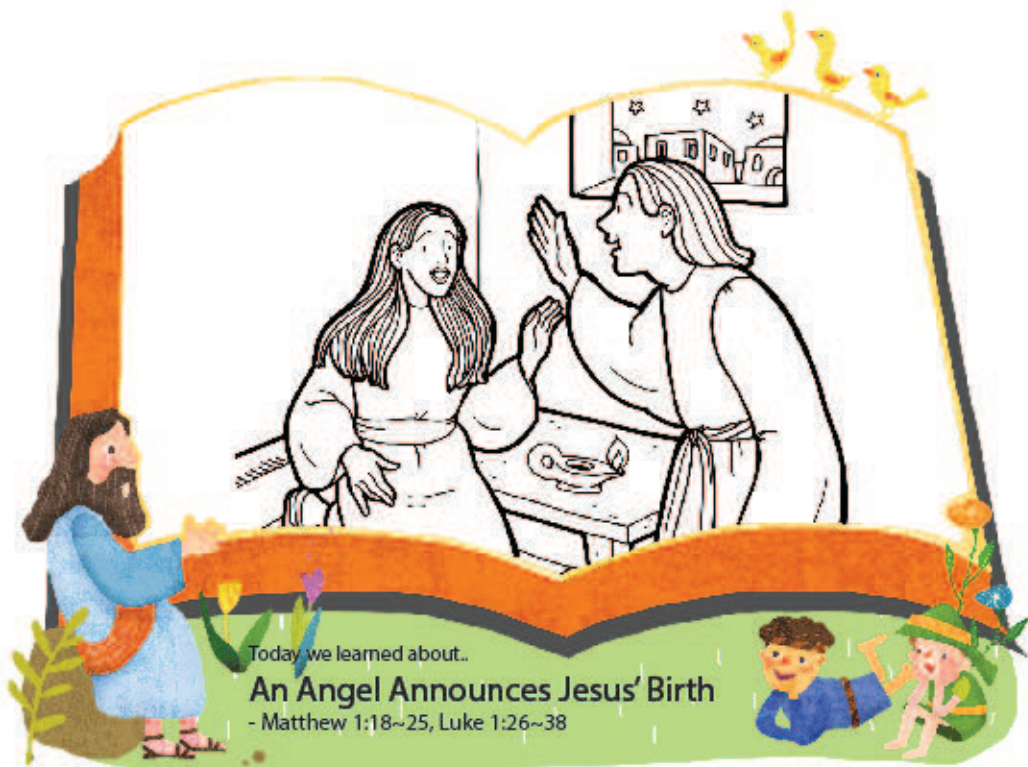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An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die but will have eternal life. (John 3:16)

You can earn Talents by:

1. On Time
2. Attendance
3. JOYLAND Home Activity
4. Memory Verse
5. Bring the Bible

**10 Talents**

12.06.2020 Name: \_\_\_\_\_



Today we learned about...

### An Angel Announces Jesus' Birth

- Matthew 1:18~25, Luke 1:2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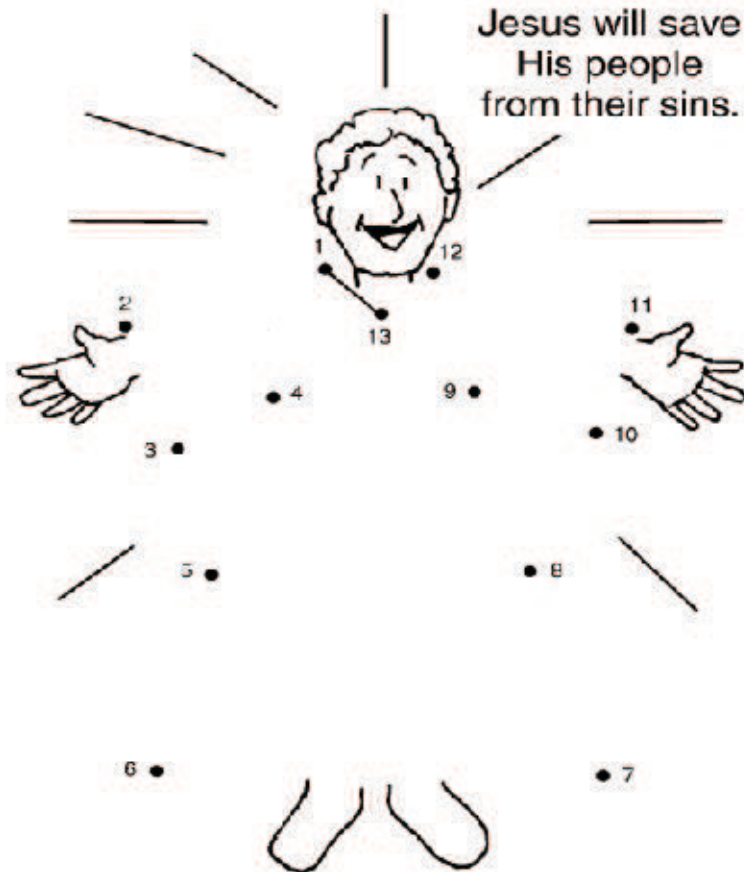
#### Lesson Questions



1. Who was Jesus' mother and who was she pledged to be married to?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 어머니와 결혼하기로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Mary was Jesus' mother and she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2. What did the Angel of the Lord tell Joseph to name the baby?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라고 했나요?  
 -> Jesus.  
 예수.
3. Was Joseph obedient to the Angel of the Lord's instructions?  
 요셉은 천사가 전달한 말씀을 다 순종했나요?  
 -> Yes. Joseph took Mary as his wife. Mary gave birth to a son, who they named Jesus.  
 네. 마리아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 Bible Story Activity

Connect the do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A long, long time ago, God promised He would send His special Son. God's people waited and waited and waited. They wanted God to send His Son. One person who waited for God's promise was a young woman named Mary. God wanted to tell a girl named Mary some good news. When you tell someone good news, you might call on the telephone or write a letter. But God sent an angel to talk to Mary! One day Mary was alone. She looked up. Standing right there beside her was an angel! Mary had never seen a real angel before. Mary was surprised to see the angel. She was afraid. The angel said, "Don't be afraid, Mary. God loves you. He has chosen you to be the mother of a very special baby. You will name the baby Jesus. This special baby will be God's own Son!" Mary was glad to hear this promise. She praised God.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아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젊은 처녀 역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마리아는 깜짝 놀라며 무서워했어요. 그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야,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아주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